

IT SoC 2004 및 차세대 PC 산업 전시회 개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PC 분야와 저전력 그래픽 SoC, 지상파 DMB 단말용 SoC 등 IT SoC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도 함께 전시되어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전시회 부대행사로는 국내 부품업체의 해외시장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상담회에는 중국의 대표 가전업체인 하이얼과 이동통신단말기 업체인 TCL 이동통신을 비롯 보천 수신, 콘카 등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여기에 국내 SoC 전문업체인 엠텍비젼, 토마토 LSI 등 26개 업체가 대 중국 비즈니스에 나서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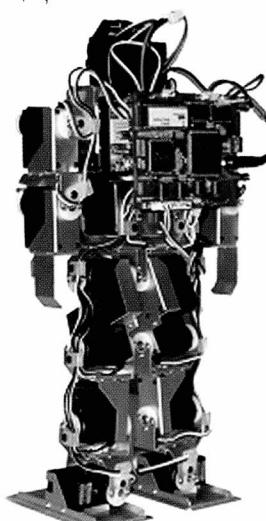
또 IT관련 업체 및 일반인들의 눈길을 끌었던 Wearable PC 패션쇼도 빼놓을 수 없다.

협회는 지난 10월 27일, 28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COEX) 그랜드볼룸 및 아셈홀에서 정통부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IT SoC(System on Chip) 및 차세대 PC 산업 전시회와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본 협회/차세대PC협의회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 SoC 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여 열렸다. 전시회의 부대행사로는 비즈니스 상담회, 입는 컴퓨터 (Wearable PC) 패션쇼, 차세대PC 체험관 운영, SoC 로봇워 경기 등이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매그나칩 반도체, 삼성전자, LG전자, 미국 Xybernaut사 등 기업체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PDA, 스마트폰, 안경 형태의 디스플레이(HMD)를 비롯한 정보단말기와 다양한 부품 (IT SoC) 등이 선보였다.

또한, 그간 정통부에서 추진해 온 손목시계형 차세대 PC, 인체 매질 통신기술, 바이오 셔츠,



'EveryWhere, Every Wears Technology'라는 주제하에 진행된 입는 컴퓨터 패션쇼는 본 행사장인 그랜드볼룸 로비에서 매일 11시(개막일 당일은 10시30분), 13시, 15시 등 총 6회가 개최되었다.

8개 스테이지로 구성된 패션쇼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미래 차세대PC 활용에 대한 다양한 상황연출과 기술력을 보여주어 앞으로 정보통신기가 인간과 얼마나 친화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수만 해도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인체매질 통신과, 손목시계형 PC에서 영상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플렉시블 태양 전지 등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PC 관련 기술도 공개되었다.

단순히 차세대PC 제품을 걸치고 나왔던 기존 행사와는 달리, 차세대PC 제품 소개 영상과 나레이션 등을 통해 차세대PC 기술에 대한 설명도 제공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매우 드문 행사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관람객들이 직접 차세대PC 환경을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관도 별도로 마련되어 관람객들은 노파를 이용한 로봇팔 구동 기술, 냄새인식 및 재현 기술, 헵틱 인터페이스 기술(물체에 대한 촉감과 중량감을 느낄 수 있는 기술), 3차원 스마트 입력장치 기술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SoC 로봇 워(Robot War)'의 본선 16강전도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대학생, 일반인 등 국내 SoC산업의 인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경기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0개 팀이 참가하여 기술력을 뽐냈다. 또한 차년도 대회로 준비하고 있는 2족 로봇경기가 시연되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그랜드볼룸 2층 아셈홀에서는 국제 IT SoC 및 차세대 PC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국제적 IT 기업인 ARC International사 및 Xybernaut사 CEO의 Keynote Speech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초청강연이 이어졌다.

IT SoC 분야에서는 Mobile Communication, Wireless/Telematics 등 4개 분야에 걸쳐 103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구두 50편, 포스터 30편 등 80여 편이 발표되었으며, 'SoC산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패널토의에서는 SoC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분야, Foundry 수급체계 개선, 시스템 업계와 부품업계의 협력체계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차세대PC 분야에서는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 e-Health 구현을 위한 생체신호 감지·처리·통신 기술, 차세대 PC를 위한 오감 융합 재현 기술 등 7개 과제에 대한 기술내용이 발표되었다.

